

러 석유 수출량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수익은 아직

**IEA “하루 60만 배럴 증가...2020년 4월來 최고”
수익은 43% 하락...수입국 줄고 가격 낮춘 영향**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17일(현지시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4일 공개한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 를 인용, 러시아의 3월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하루 60만 배럴 증가해 2020년 4월 이

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석유 수출로 127억 달러(약 16조70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에너지를 포함해 여러 경제 제재를 가했다. 특히 러시아 에너지 의

존도가 높았던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와 정제유 수입을 금지하면서 수출이 급감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등 ‘유럽 고객’을 대체할 구매자들을 찾았다. IEA는 다만 수익은 1년 전보다 43% 줄어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서방 제재로 ‘제한된 고객’에게 ‘더 싼 값’에 팔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석유 수출 수익 감소로 올해 1분기 2조4000억 루블(약 38조5000억원)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IEA에 따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재정의 약 45%를 석유 및 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함께 IEA는 석유수출기구(OECD)와 주요 산유국으로 이뤄진 OPEC+ 감산은 올해 하반기 석유 부족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IEA는 감산으로 3월~12월 세계적으로 하루 40만 배럴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체적으로 수요는 하루 200만 배럴 증가한 1억2000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은 하루 120만 배럴 늘어난데 그칠 것으로 봤다. 석유 부족은 이미

성장 둔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OPEC+는 이달 2일 원유 생산량을 하루 166만 배럴 줄일 것이라고 감작스럽게 발표했다. 사우디 측에 따르면 감산은 5월에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더해 추가 조처다. 국제유가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추가 감산 발표 후 8.6% 가까이 뚝 떨어졌던 배럴당 87달러에 거래되기도 했다.

김재환기자

작년 하반기 배달원 수 45만명 ‘역대 최다’...대면업도 회복세

통계청,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특성’ 발표



지난해 하반기 거리두기 완화 여파에도 불구하고 배달원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45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 폭은 둔화했다. 대면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숙박·음식점업과 관련 취업자 수도 늘었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10월)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발표했다.

◆음식점·주점·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 회복세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841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산업소분류별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5.7%인 160만7000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4만3000명(0.1%) 늘었다. 작년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본격 해제되면서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업 고용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거리두기 해제 후 숙박·음식점업에 속한 산업들이 회복세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소분류로 봤을 때 주점·비알코올 음료업이나 음식점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운영업의 취업자 수가 비교적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면 서비스업인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은 7만1000명 늘어난 47만9000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은 3만8000명이 늘어난 1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작물 재배업(5만3000명), 의원(6만명),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4만8000명), 거주 복지 시설 운영업(3만8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대로 고용 앞선 및 인력 공급업(-2만3000명),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2만2000명), 고등 교육기관(-1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종사자 지위별로 봤을 때 상용직이 늘고 임시·일용직이 감소했는데, 그 여파로 고용 앞선 및 인력 공급업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종의 경우 취업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취업자는 작물재배업(83만5000명·5.2%), 음식점업(63만7000명·4.0%), 건물건설업(56만명·3.5%) 순으로 많았다. 여자는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118만 6000명·9.6%), 음식점업(96만9000명·7.8%), 작물재배업(61만4000명·5.0%) 순이었다. 연령계층별로는 15~29세(36만2000명·9.2%), 30~49세(50만1000명·4.3%)에서 음식점업 취업자 비중이 가장 컸다. 50세 이상은 작물재배업(130만9000명·10.2%), 비거주복지 시설운영업(99만8000명·7.8%) 순으로 취업자가 많았다. ◆배달원 수 2.2만명 늘어 역대 최다...증가 폭은 둔화 직업소분류별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원 수

는 역대 최대치인 45만명으로 전년 대비 2만 2000명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작년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면 서비스업이 활성화하는 가운데, 배달업종 종사자도 동시에 꾸준히 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 폭은 둔화했다. 배달원 취업자 증가 폭은 하반기 기준으로 2020년 11.8%(4만1000명), 2021년 9.7%(3만8000명), 2022년 5.1%(2만2000명)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달 수요는 비교적 최근에 꺾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직 배달과 음식점업이 같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며 “이번 4월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하면 배달 수요 감소가 반영된 결과가 통계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회복세로 인한 대면서비스업 관련 업종인 조리사(7만2000명),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6만1000명) 등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이의 도소매업 감소 추세로 매점 판매 종사자(-4만7000명)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감소했다.

◆작년 임금근로자의 22.1%, 월급 400만원 이상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168만4000명 중 22.1%가 4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9%포인트(p)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300만~400만원 미만 구간의 비중도 전년보다 2.7%p 늘어난 20.8%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동시에 상용 종사자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또 작년 대기업을 위주로 임금 인상이 있었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 수준별로 200만~300만원 미만(33.8%) 400만원 이상(22.1%), 300만~400만원 미만(20.8%), 100만~200만원 미만(14.2%), 100만원 미만(9.1%) 순으로 비중이 컸다. 100만~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은 각각 4.4%p, 0.9%p, 0.3%p 감소했다. 산업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400만원 이상은 금융및보험업(45.6%),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44.4%), 정보통신업(40.9%) 등에서 비중이 컸다. 서선욱기자

아파트에만 몰린 관심...오피스텔·빌라 냉골

아파트값 하락, 규제완화에 비아파트 인기 하락



주택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아파트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오피스텔과 빌라시장은 개점휴업 상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값이 조정되면서 매수 의지가 있는 수요층들이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어 당분간 비아파트 주거상품의 인기는 시들할 전망이다. 주택 경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아파트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면서 오피스텔과 빌라시장은 개점휴업 상태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값이 조정되면서 매수 의지가 있는 수요층들이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어 당분간 비아파트 주거상품의 인기는 시들할 전망이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678건으로 2월(2461건)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말부터 대단지 인기아파트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가격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됐다. 가격 바닥을 인지한 수요자들이 대거 아파트 매수 시장에 뛰어들면서 송파(194건), 노원(174건), 강동(166건), 강남(143건)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졌다. 반면 빌라 거래 비중은 크게 줄었다.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거래량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월 전국 주택거래량 7만7490건 가운데 아파트는 6만3909건으로 집계돼 82.5%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빌라 거래량은 7021건

으로 9.1%에 그쳤다. 통계 사상 가장 낮은 비중이다. 실거주용으로 인기가 낮아진 측면도 있지만 빌라는 향후 정비사업을 기대하고 투자용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빌라왕 사기사건’ 등이 터지면서 세입자들이 빌라 전세를 꺼려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도 볼지 않는 분위기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승기 완판 행진을 이어 가던 것이 무색하게 분양실적이 형편없는 상황이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 오피스텔 분양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분기 실적은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 분양물량은 1464실로 전년 동기 7282실에 비해 80% 감소했고,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인 1만2723실과 비교해 약 10분의 1에 그쳤다. 매매가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1.19% 내려 전월(-0.82%)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72%→-1.15%), 서울(-0.59%→-0.81%), 지방(-1.21%→-1.36%)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불경기다. 아파트는 국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상품이다. 이의 대체상품으로 취급되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던 후행하는 모습이다가 시장 위축기에는 거래가 얼어붙거나 급락하는 패턴을 보인다. 여기에 1:3대책 등을 통해 대출, 청약, 세제 등 아파트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 점도 비아파트 시장의 위축을 불러왔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졌고, 흔히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문턱도 낮아져 아파트 매수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고금리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주택규제가 완화되며 오피스텔이 가진 상대적 이점이 적어지면서 수요가 이동했고 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유유나기자

테슬라 할인의 나비효과...3000만원대 전기차 잇단 출시

향후 몇 년 간 전기차 모델 60여종 출시될 예정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에서 3만 달러(약 3900만원) 이하 저가 전기차의 출시가 이어질 것이라고 16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향후 몇 년 간 전기차 모델 60여종이 출시될 예정인데 주로 저가 전기차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유럽 시장에 2만5000유로(약 3600만원) 미만의 ID.2 모델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도 내년에 미국서 2만9900달러(약 3887만원)에 피어 크로스오버를 출시할 계획이다.

제너럴모터스(GM)도 올해 가을에 3만달러 이하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쉐보레 이쿼녹스EV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완성차업체들이 앞다퉀 저가 전기차를 출시를 준비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 때문이다. 테슬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모델 3과 모델 Y 차량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출시 예정인 테슬라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소비자 가격이 2만5000~3만달러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CNBC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제공하



는 7500달러(약 98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자동차 대출 시장에서 친환경 차량을 위한 금융 혜택을 늘리고 있어 저가형 전기차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기본 소비자가가 3만달러 미만인 전기차 모델은 GM의 세미 볼트와 볼트EV, 닌산 리프인데, 평균 판매 가격은 3만달러를 넘어간다. 최이슬기자

“빚 갚자”...청약통장 9개월째 해지 러시

한 달 동안 8만명 더 줄어...작년 7월부터 감소 행진

부동산 침체 여파로 신규 주택 청약시장 인기가 식으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05만7127명으로 2월 말 2613만7772명에 비해 8만645명 감소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7월(2701만9253명)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한 때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작년 초만 해도 ‘도도 청약’으로 불렸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 청약에 당첨만 되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씩 하락하는 반면 분양가는 계속 치솟아 큰 시세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청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통장 금리가 시중 은행 금리와 차이가 큰 점도 청약통장 해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4% 안팎으로 크게 오른 데 반해 청약통장 이율은 연 2.1%에 불과하다. 이에 대출 이자나 원금 상환을 위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약통장 감소세는 최근 들어 둔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14만, 10만명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8만명이 감소해 감소 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서울 내 비규제지역 청약 당첨자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완화 등 정부의 규제 완화를 계기로 국지적으로 청약 수요가 살아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아직 청약시장이 완전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연착륙 대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